

아동학대 유형별 우울성향, 자기효능감, 학업성취간의 관계*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ypes of Child Abuse, Depressive Tendencies,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나은숙(Eun-Suk Na)¹⁾
정익중(Ick-Joong Chung)²⁾

ABSTRACT

Data from the Seoul Panel Study of Children were analyzed for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ypes of child abuse, depressive tendencies,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Subjects consisted of 1,785 fourth-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2004.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employed for statistical analyses. The results were that emotional abuse was indirectly related to academic achievement via depressive tendencies and self-efficacy; children who experienced emotional abuse were more likely to have higher depressive tendencies and lower self-efficacy, which in turn, resulted in lower academic achievement. Neglect was directly related to low academic achievement. In contrast, physical abuse had no relationship with these factors. Implications for practice from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아동학대(child abuse),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우울성향(depressive tendencies), 학업성취(academic achievement).

I. 서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07)의 보고에 따르면 2003년 4,330건, 2004년 5,764건, 2005년 6,659건, 2006년 7,329건으로 아동학대가 해마다 급증함을 알 수 있다. 2006년 아동학대의 사례유형에

있어서는 방임이 2,842건(38.8%)으로 예전처럼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정서학대 2,182건(29.8%), 신체학대 1,827건(24.9%), 성학대 372건(5.1%), 유기 106건(1.4%)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3년까지는 신체학대가 정서학대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지만 2004년부터는 정서학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42-B00112).

¹⁾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²⁾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Eun-Suk Na, 16-419, San 56-1 Sillim-Dong, Kwanak-Gu, Seoul 151-746, Korea

E-mail : na6905@hanmail.net

대의 비율이 신체학대를 추월하고 있다.

아동학대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피해아동의 성장발달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에서 장·단기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 중 학업성취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학대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원경·권희경·전제아, 2006; Beezley & Martin, 1976; Chao & Willms, 2003). 그러나 학대의 모든 유형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학대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결과도 있다(Eckenrode, Laird, & Doris, 1993). Eckenrode와 동료들(1993)은 신체학대, 성학대, 방임이 아동의 학업수행과 학교에서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방임을 경험한 아동들은 학업수행에 있어서 일반아동들보다 매우 낮은 학업성취를 나타낸 반면에 신체학대나 성학대는 그 자체만으로는 학업성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유형에 따라 학업성취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연구결과가 있지만 아동학대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는 많은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대를 받는 아동들은 낮은 학업성취 외에 우울한 성향을 나타낸다(배주미, 2000; 유안진·이점숙·서주현, 2004; Hund & Espelage, 2006; Sternberg, Lamb, Greenbaum, Cicchetti, Cortes, Krispin, & Lorey, 1993). 배주미(2000)는 아동이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인적 대처반응이나 외부적인 대항 원천이 적고, 정서적·지적으로 미숙하고 통제력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울이 더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렇게 부모의 학대는 아동의 심

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Brassard, Hart, & Hardy, 1993; Claussen & Crittenden, 1991; Vissing, Straus, Gelles, & Harrop, 1991), 심각한 아동학대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나 다중인격장애와 같은 정신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고 인지와 정서체계를 왜곡시켜 불안이나 우울, 자아개념의 손상 등을 유발시키게 된다고 지적한다(Hund & Espelage, 2006).

학대받은 아동은 우울성향을 경험하며, 우울한 아동은 학교나 가정에서 경험하는 성공이나 실패사건들에 대해 우울한 성인과 동일한 부정적인 귀인 양식을 보이고 낮은 학업성취를 나타낸다(한유진·유안진, 1994; Kaslow, Rehm, & Siegel, 1984). 실제로 아동의 우울성향과 학업성취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우울한 아동이 인지적 영역에서 자신이 무능하다고 지각하며, 도전적인 학교과제에 대해서 무력감을 많이 나타냈다고 한다. 또한 우울한 아동은 주어진 과제에 대해 낮은 문제해결력을 보였고(Kaslow, Tanenbaum, Abramson, Peterson, & Seligman, 1983; Elliot, Sherwin, Harkins, & Marmaarosh, 1995), 자신과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기대를 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학대로 인해 아동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정서적 후유증은 자아존중감의 저하와 자기효능감의 상실이다(정익중·박현선·구인회, 2006).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시키고 강화시켜주어야 할 부모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학대받은 아동들은 자신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느끼게 되고 자신을 무능하다고 인식하여 자기효능감이 떨어지게 된다. 학대받은 아동의 우울성향과 낮은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 문제, 불면증, 강박증 등으로 이어진다(Beezley & Martin, 1976; Chao & Willms, 2003; Kinard, 2001; Eckenrode, Laird, & Doris, 1993).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수로서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를 낮춘다고 밝히고 있다(Ingoldsby, Schvaneveldt, Supple, & Bush, 2003). 김원경과 동료들(2006)도 아동의 문제해결력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변수는 아동의 우울과 자기효능감이라고 하였다. 특히 병리적 양육형태인 아동학대는 부모자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자기효능감 발달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동학대와 자기효능감에 대한 국내연구(박미란, 2003; 조은정, 2004; 장량, 2005)에서도 학대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성향, 문제해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임미향·박영신·김의철, 2006; Bandura, 1997)을 생각해본다면 학대는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저해하여 낮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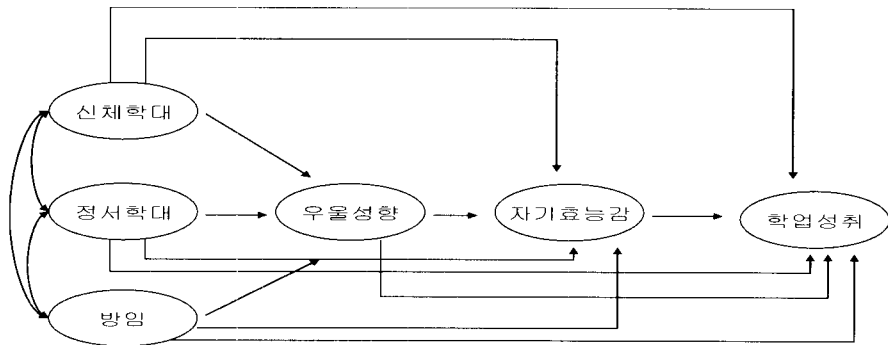
아동학대와 관련된 기존연구에서는 학대유형의 일부분만을 연구하거나(김혜성·김혜련·박수경, 2006; Hand & Espelage, 2006) 학대유형 전체를 합쳐서 연구(김미숙·박명숙, 2004; 정익중·박현선·구인회, 2006; Kinard, 2001; Shonk & Cicchetti, 2001)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유형에 따라 학업성취나 문제해결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Eckenrode, Laird, & Doris, 1993)를 감안할 때 학대 경험이 각 유형별로 아동의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명료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학대아동의 부정적인 발달양상을 강조하는 기존 연구로는 피학대아동의 적응유연성(resilience)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피학대아동의 학업성취가 떨어지지만 피학대아동이 모두 학업성취가 낮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학대의 부정적인 영향만을 지적하면 피학대아동이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피학대아동의 발달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발달을 설명할 수 있는 매개변수들이 설명되어야 하는데, 기존연구에서는 이러한 매개변수를 함께 다룬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대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경로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긍정적인 유형의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Bandura, 1997)으로, 특정한 과제의 수행이나 학업성취 상황에서 수행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개인적 특성이다.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수로 검토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기효능감이 동기화의 유지, 불리한 상황에서의 적응유연성 그리고 스트레스 상태에서의 효과적인 수행능력에 기여하기 때문이다(Bong, 1997; Caprara & Steca, 2006). 실제 자기효능감을 아동의 학습과제 성취장면에 도입한 Bandura(1997)와 Schunk(1984)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학습과제에의 흥미 및 의욕을 높이는 동시에 그 성취수준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근거로 하여 피학대와 학업성취간의 관계를 연결 짓는 매개변수로서 자기효능감이 피학대아동의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갖고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아동학대는 유형에 따라 학업성취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문제 2> 우울성향과 자기효능감은 아동학대와 학업성취간의 관계를 어떻게 매개하는가?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분석모형을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다. 학대(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우울성향·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와 학대·우울성향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간접경로 등을 모두 표시하였다.

등학교를 표집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아동의 경우, 전문 조사원이 교실에서 행하는 집단 면접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부모에 대해서는 아동을 통해 설문지를 전달하고, 부모가 자기기입 후 밀봉하여 보내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1차년도인 2004년에 11개 초등학교의 4학년 학생 전수 1,785명의 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고, 2차년도인 2005년에는 1차년도에 조사되었던 사례 중 93.94%인 1,677 사례가 조사되었다. 2차년도에는 응답자 모두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다. 아동의 성별은 남학생 929명(52%), 여학생 856명(48%)의 분포를 보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아동패널연구(Seoul Panel Study of Children : SPSC)의 1-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아동의 학대경험은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고 우울성향,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는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SPSC는 2004년도를 1차년도로 하여 매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자료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자치구인 K구를 선정하여 전체 초등학교를 저소득지역 학교와 비저소득지역 학교로 층화하되, 저소득지역 학교를 과대표집하는 방식으로 11개 초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신체학대(5문항), 정서학대(3문항), 방임(7문항) 등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1=전혀 없었다, 2=1년에 1-2번 정도, 3=2-3개월에 1-2번 정도, 4=한 달에 1-2번 정도, 5=일주일에 1-2번 정도)를 사용하였다. 아동학대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이 보고하도록 개발된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문항을 사용하였다. 신체학대는 총 5문항으로, 문

항 내용은 ‘부모님이 아동을 발로차거나, 주먹으로 치거나, 몽둥이로 때려 맞았는지’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신체학대 총점의 범위는 5-21점이며 평균은 5.45(표준편차=1.32)이다. 정서적 학대는 3문항으로, 문항 내용은 ‘부모님이 아동에게 멍청한 것, 바보자식,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하였는지’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정서학대 총점의 범위는 3-15점이며 평균은 4.09(표준편차=1.97)이다. 방임은 총 7개의 문항으로, 문항내용은 ‘어두워질 때까지 아동 혼자 집을 본 적이 있는지’, ‘아파도 부모님이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는지’, ‘불량 오락실에 출입하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하였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었다. 방임 총점의 범위는 7-24점이며 평균은 8.12(표준편차=1.94)이다. 아동의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의 신뢰도계수는 각각 .62, .72, .34이었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Hernandez(1993)가 사용한 유능감척도와 Sherer 등(1982)이 제작한 자기효능감 척도 23문항을 기초로 박현선(1998)이 재구성한 척도의 일부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내용은 ‘나는 처음에 못할지라도 잘 할 때까지 열심히 한다’, ‘나는 재주가 많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지가 강하다’와 같은 문항으로 총 3문항을 지표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는 편이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의 4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계수는 .67로 비교적 적절한 신뢰도를 보였다.

3) 우울성향

아동의 우울성향 측정도구는 Achenbach(1991)의 YSR을 오경자 · 하은혜 · 이혜련 · 홍강의

(1998)가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에게 적합하도록 수정 번안한 K-YSR에서 우울성향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사용하였다. 아동의 우울성향은 13문항으로 3점 척도(1=전혀 아니다~3=자주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신뢰도계수는 .83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아동학대와 우울성향은 여러 항목을 합산하여 하나의 지표로 사용하는 항목 묶기(item parceling)를 사용하였다. 이는 모형을 유의미하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사례수 당 추정해야 할 모수의 개수를 줄여 적합한 추정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Kline, 2005).

4) 학업성취

아동의 학업성취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출제된 초등학교 5학년용 국어, 수학 학업성취도 테스트를 실시하여 직접 측정하였다. 국어는 15점 만점에 평균 11.42점(표준편차=2.55)이었고, 수학은 15점 만점에 평균 8.95점(표준편차=3.00)이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학업성취의 측정이 학교간의 실력 차이를 반영할 수 없는 각 학교 단위의 성적이거나(주동범, 1998), 학생들이 자신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성적(신예덕, 2005; Cheng & Chan, 2003)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데 반해, 본 연구는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테스트를 시행하여 얻은 객관적인 점수를 학업성취 변수로 활용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였다.

5)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서 응답자인 아동과 그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가족구조, 빈곤 여부를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들은 다른 변수들과 달리 부모조사에 의해 수집된 자료이다. 가족구조는 구조적 결손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규정하였다. 즉, 부모의 결혼 상태가 기혼이며 아동과 함께 거주할 경우(0)와 부모가 별거, 이혼 또는 사별하여 부모 중 한쪽과 거주하거나 부모 외에 다른 보호자와 거주할 경우(1)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또한 빈곤 여부는 이분변수로서 가구의 월평균 소득총액이 가구규모(가구원 수)에 적용되는 빈곤선 즉,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는 빈곤(1)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는 비빈곤(0)으로 규정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학대, 우울성향, 자기효능감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Amos 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절차는 개념 측정의 적합도를 검토하기 위한 측정모형을 먼저 추정하고, 그 측정모형을 활용하여 개념 사이의 예측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구조모형 분석을 수행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적합도 지수 카이제곱(χ^2)값과 함께 표준적합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 비표준화지수인 TLI(turker-lewis index), NFI(normed fit index), 근사평균오차제곱근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RMSEA값이 0.06이하이면 적합하고, 0.10보다 크면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NFI, CFI, TLI는 0부터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최적을 의미한다. 0.9 이상이면 적합정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하는데 최근에는 0.95 이상이 제안되고 있다(Hu & Bentler,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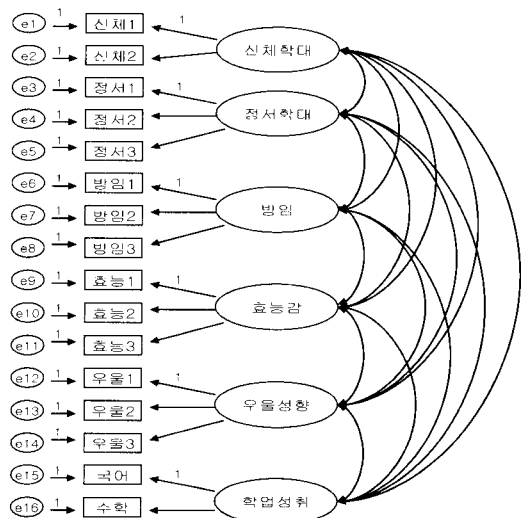
III. 연구결과

1. 측정모형

본 연구에 포함된 모든 변수 즉,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우울성향,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는 잠재변수로서 다중지표표를 사용하여 구성되는데, 이렇게 설계된 측정모형이 과연 적합한지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그림 2>와 같다.

이러한 측정모형에 대한 분석결과, 요인적재량은 유의수준 .001에서 모두 유의하였다(<표 1>).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352.892(df=89)$, $p=.000$ 으로 카이제곱통계량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측정모형은 다른 적합도 지수 NFI=.995, CFI=.996, TLI=.994, RMSEA=.040 등을 고려할 때도 자료를 잘 설명하도록 적합하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각 잠재변수 사이의 관련성 정도 및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 보



<그림 2> 잠재변수의 측정모형

〈표 1〉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

잠재변수	측정변수	비표준화 요인적재량	표준화 요인적재량	표준오차	t값
신체학대	신체1	1.000(r)	0.721	-	-
	신체2	0.716	0.683	.037	19.522***
정서학대	정서1	1.000(r)	0.720	-	-
	정서2	0.903	0.694	.039	23.011***
	정서3	0.779	0.637	.036	22.771***
방 입	방입1	1.000(r)	0.385	-	-
	방입2	0.607	0.617	.057	10.705***
	방입3	0.401	0.600	.03	10.726***
효 능 감	효능1	1.000(r)	0.732	-	-
	효능2	0.848	0.604	.053	16.134***
	효능3	0.810	0.583	.051	15.962***
우울성향	우울1	1.000(r)	0.874	-	-
	우울2	0.595	0.749	.022	26.894***
	우울3	0.578	0.657	.023	24.697***
학업성취	수학	1.000(r)	0.662	-	-
	국어	.930	0.724	.122	7.640***

(r)=준거지표, *** $p < .001$

았다(〈표 2〉).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의 대다수는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입과 학업성취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신체학대·정서학대와 학업성취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상관계수의 값은 대부분 본 연구의 모형에서 가정한

방향성과 일치하였고, 특히 방입, 우울성향과 관련된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2. 구조모형

연구의 이론모형(그림 1)에서 설정한 모든 경

〈표 2〉 잠재변수간의 상관관계

잠재변수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입	우울성향	효능감	학업성취
신체학대	-	.580***	.279***	.149***	-.015	-.037
정서학대		-	.294***	.23***	-.116***	-.037
방 입			-	.123***	-.078**	-.067**
우울성향				-	-.178***	-.052*
효 능 감					-	.191***
학업성취						-

* $p < .05$ ** $p < .01$ *** $p < .001$

로계수를 추정한 모형A를 기본모델로 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주요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인 학업성취에 이르는 모든 직접경로와 우울성향 및 자기효능감에 이르는 간접 경로를 모두 표시한 모델이다. 최초 기본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모든 경로($p < .001$)를 제거한 모형을 모형B로 명명하고, 앞서 추정 한 모형A 및 모형B를 비교함으로써 간명하면서도 현실적인 적합성이 높은 최적의 모델을 추정 하고자 하였다.

먼저, 모형A가 경험적 자료를 잘 반영하는지 에 대한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X^2=678.481(df=120)$, $p=.000$ 으로 카이사승통계량이 유의미한 수 준으로 나타났다. 다른 적합도 지수를 추가적으 로 살펴본 결과, 높은 적합도(NFI=.991, CFI=.992, TLI=.989, RMSEA=.051)를 보여 모형A는 자료를 잘 설명하도록 적합하게 구성된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혼가정여부, 빈곤 여부를 통제한 상황 에서도 동일하였다. 이러한 모형A에서 학업성취 의 다중상관자승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는 .135로 나타나 모형A에 포함된 모든 독립변 수들이 학업성취의 13.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모형A의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기본모형인 모형A에서는 방임이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127)이 확인되었 고, 자기효능감도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고 있음(.290)이 확인되었다. 통제변수인 가족구조와 빈곤도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고 있었다. 아동이 결혼가족이나 빈곤가 족에 소속될수록 학업성취가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우울성향이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측한 것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아동학대와 우울성향과 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서학대는 우울성향과 유

<표 3> 모형A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값
학업성취←신체학대	-.361	-.060	.455	-.795
학업성취←정서학대	.478	.137	.259	1.844
학업성취←방임	-.459	-.127	.178	-2.582*
우울성향←신체학대	-.508	-.103	.329	-1.541
우울성향←정서학대	1.031	.359	.184	5.587***
우울성향←방임	.028	.010	.126	.225
효능감←우울성향	-.097	-.298	.011	-8.443***
학업성취←우울성향	.007	.006	.045	.158
학업성취←효능감	1.094	.290	.161	6.804***
효능감←신체학대	.229	.144	.117	1.968
효능감←정서학대	-.086	-.092	.066	-1.299
효능감←방임	-.080	-.084	.045	-1.794
신체학대↔정서학대	.173	.745	.010	16.519***
정서학대↔방임	.162	.421	.019	8.478***
신체학대↔방임	.100	.447	.012	8.532***
학업성취←가족구조	-.509	-.072	.215	-2.363*
학업성취←빈곤	-1.195	-.170	.224	-5.332***

* $p < .05$ ** $p < .01$ *** $p < .001$

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학대가 심할수록 우울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359). 또한 우울성향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98).

이는 학대 그 자체만으로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Eckenrode 외(1993)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며, 정서학대가 아동의 우울 불안에 더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한 선행연구(안동현 외, 2003; 조옥자·현온강, 2005; 홍수경, 2003; 홍은주, 1998; Hund & Espelage, 2006)와도 같은 결과이다. 그러나 신체학대와 방임이 아동의 우울성향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우울성향이 학대와 자기효능감의 매개변수로 작용하여 자기효능감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예측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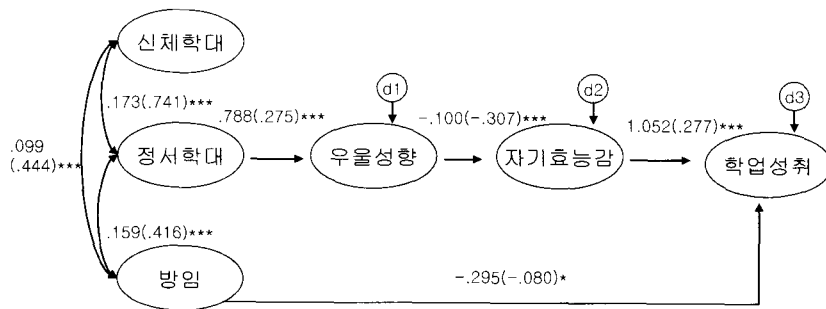
요약하면 정서학대는 아동의 우울성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심리적 상황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저하시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또한 방임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그러나 기본모형인 모형A에서는 신체, 정서학대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성향도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다만, 자기효능감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최적의 모델 추정

모형을 수정하는 전략은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유의미하지 않다고 제시된 경로를 제거하여 간명도(parsimony)를 높이는 모형 다듬기(model trimming)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각 경로를 제거했을 때 모형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지 통계적으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경로를 제거한 경쟁모형을 원래의 연구모형과 비교하여, 모형적합도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퇴하는지, 즉 불일치 수준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지 카이자승통계량 차이를 살펴보아 최종모형을 얻었다.

모형A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던 경로 예컨대, 신체학대·정서학대·우울성향이 학업성취에 이르는 경로와 신체학대·방임이 자기효능감에 이르는 경로와 같이 불필요한 경로를 제외하고 유의수준 $p < .05$ 에서 유의미한 경로들만을 포함시켜 모형B를 설정하였다(<그림 3>). 모형B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χ^2 값은 692.539이며, 자유도는 128, $p = .000$ 으로 카이자승통계량



경로계수 : 비표준화계수(표준화계수)

(그림 3) 모형B의 분석결과

〈표 4〉 모형의 비교

모형	χ^2	CFI	NFI	TLI	RMSEA
모형A	678.481(df=120, p=.000)	.992	.991	.989	.051
모형B	692.539(df=128, p=.000)	.992	.990	.990	.049

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른 적합도 지수를 추가적으로 살펴본 결과, 비교적 높은 적합도(NFI=.990, CFI=.992, TLI=.990, RMSEA=.049)를 보여 모형B 또한 자료에 합치하는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

모형A와 모형B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표 4>에서 살펴보면 CFI, NFI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TLI(모형A : .989, 모형B : .990)와 RMSEA(모형A : .051, 모형B : .049)에서 모형B가 더 나은 적합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카이사승차이 검증(χ^2 difference test)을 통해 모형A와 모형B를 비교한 결과, 카이사승차 차이값(모형B-모형A)은 14.058(df=8)로 유의도 .05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영가설이 기각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모형A의 부합도의 증가는 간명성의 상실에 비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모형B가 더 최적모형으로 검증되었다.

이에 모형B를 기반으로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효과를 분해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아동학대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살펴보면, 신체학대는 학업성취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방임은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서학대는 우울성향과 자기효능감을 통해 아동의 학업성취에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023). 우울성향 역시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떨어뜨려 학업성취에 부정적으로 간접영향을 미치고 있었다(-.085). 자기효능감은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효과가 .277로 아동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학대나 방임이 신체학대보다 학업성취에 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 연구(Hart & Brassard, 1991; Schneider, Ross, Graham, & Zielinski,

〈표 5〉 모형B의 효과분해

내생변수	효과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우울성향	자기효능감
우울성향	직접효과		.788(.275)			
	간접효과	-	.000(.000)	-	-	-
	총효과		.788(.275)			
자기효능감	직접효과		.000(.000)		-.100(-.307)	
	간접효과	-	-.078(-.085)	-	.000(.000)	-
	총효과		-.078(-.085)		-.100(-.307)	
학업성취	직접효과		.000(.000)	-.295(-.080)	.000(.000)	1.052(.277)
	간접효과	-	-.083(-.023)	.000(.000)	-.105(-.085)	.000(.000)
	총효과		-.083(-.023)	-.295(-.080)	-.105(-.085)	1.052(.277)

비표준화효과(표준화효과)

2005)와 일치한 결과이다.

학대유형에 따라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 정서학대는 우울성향, 자기효능감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75 \times -.307 \times .277 = -.023$). 우울성향은 자기효능감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07 \times .277 = -.085$). 이는 정서학대를 받은 아동은 자기효능감이 떨어져 학업성취가 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종속변수인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변수를 비교해 보면, 총 효과가 각각 정서학대(-.023), 방임(-.080), 우울성향(-.085), 자기효능감(.277)으로 나타나 피해대아동의 학업성취 경로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의 가장 큰 역할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체학대를 제외하고 학대는 아동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아동학대의 각 유형이 매우 상관관계가 높지만 상당히 다른 경로를 보이고 있었다. 신체학대는 어떤 요인들과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방임은 학업성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학대만이 우울성향과 자기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학업성취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시작된 것은 시간적으로 짧으나 그간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실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는 아동발달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고 낮은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대가 아동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학대를 받은 일부 아동들은 환경에 잘 적응하고 학업성취도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대처자원에 대해서는 조사한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대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자기효능감이 어떠한 기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기존에 학대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보다 많이 논의되었던 우울성향과 본 연구의 주된 초점인 자기효능감의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의 논의에 기반하여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우울성향, 자기효능감,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모형화한 후에 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서울시 소재 자치구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아동패널의 1-2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학대유형 중 중복학대가 많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유형별로 구분하기보다 하나로 합쳐서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분석결과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은 각각 아동학대의 일 유형으로서 서로 상관관계가 매우 높았지만 하나의 동일한 위험요인으로 합쳐질 수 없는 상이한 발달경로를 보였다. 첫째, 신체학대는 학업성취와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학대 총점의 범위 5-21점 중 평균이 5.45(표준편차=1.32)로 변량이 매우 낮고, 전체의 68.8%가 신체학대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빈도가 너무 낮아서 생긴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신체학대와 다른 학대유형 간의 상관관계(정서학대와의 상관관계 .741,

방임과의 상관관계 .444)가 매우 높고 중복학대의 비율이 36.7%로 높아서 신체학대의 영향이 없다기보다 그 영향이 다른 학대유형을 통해서 잠재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선행연구(안동현 외, 2003; Hart & Brassard, 1991; Schneider, Ross, Graham, & Zielinski, 2005)에서도 신체학대보다 정서학대나 방임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더 미친다고 주장한 바에 따르면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방임은 아동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성적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높고 그 관심이 사교육으로 표출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방임은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포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실이 연구결과에도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정서학대는 아동의 우울성향, 자기효능감을 통해 학업성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정서학대는 우울성향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우울성향은 자기효능감을 떨어뜨려 아동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정서학대와 우울성향은 학업성취에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넷째, 자기효능감은 아동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최적모델에서 종속변수인 아동의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서학대(-.023), 방임(-.080), 우울성향(-.085), 자기효능감(.277)으로 나타나 학대받은 아동의 학업성취 경로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의 역할이 가장 크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본 연

구결과를 통해 피학대아동의 학업성취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피학대아동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학교사회복지사 등의 공식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학교에서는 아동의 학업성취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부모와 자녀의 관계나 아동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해야 한다.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되는 아동들은 신체적 변화와 학업에 대한 부담 증가로 인해 심리적으로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 특히 정서학대 아동의 경우는 우울성향이 높게 나타나 낮은 학업성취도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이 시기 아동들의 심리상태와 가정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상담에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대유형별로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방임의 경우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영하여 부모교육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부모에게는 학대가 아동발달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과 태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부모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서학대 아동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울성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심리치료와 함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자기주장훈련 등이 유용할 것이다.

셋째,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실천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부정적인 정서의 영향을 감소시키며, 스트레스를 적게 받게 하고 우울의 정도도 낮추며 더 효과적인 대처전략을 활용하도록 한다(Bandura, 1997).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학교사회복지사와 함께 정규교과과정에 포함시키든지 방과 후 활동에 포함시키든지, 개인상담 속에서 진행하든지 집단 활동 속에서 진행하든지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전

락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실천적 함의 외에도 본 연구는 객관적인 테스트 도구를 통해 학업성취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함으로써 학업성취에 대한 학대의 효과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는 데 성공했다는 이론적 함의를 지닌다. 또한 기존 국내 연구에서는 피학대아동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종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발달경로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종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발달경로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종단적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인과관계에 대한 확신정도를 높일 수 있었지만 현재 패널조사의 초기단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2개년의 자료밖에 이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인과관계가 더욱 명확히 밝혀지도록 차후의 더 장기적인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후속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자기효능감을 논의함에 있어서 사회적 자기효능감, 개인적 효능감, 집단적 효능감에 대한 다차원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에 대한 다차원적인 분석이 수행된다면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유형의 매개변수로 자기효능감만을 살펴보았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외에 또래집단과의 유대관계나 사회적 지지 등 다른 매개변수에 대한 분석도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원 척도의 문항수를 많이 줄인 척도를 사용하였다는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철저하게 신뢰도를 점검하였지만 이러한 척도를 사용한 것이 연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원 척도나 유사한 다른 척도를 이용한 반복연구가 역시 추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김미숙·박명숙(2004). 아동의 학습능력 저해요인으로서의 학대경험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5(5), 29-40.
- 김원경·권희경·전제아(2006). 부모양육행동, 아동의 우울 및 자기효능감과 아동의 문제해결력 간의 구조모델. **아동학회지**, 27(3), 67-78.
- 김해성·김혜련·박수경(2006).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모로부터의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 집단비교를 통하여. **한국아동복지학**, 21, 207-232.
- 박미란(2003).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주미(2000).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인지변인의 지속성과 상호예측.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경자·하은혜·이혜련·홍강의(1998). **K-YSR형 소년자기행동평가척도**. 서울: 중앙정책연구소.
- 안동현 외(2003). 신고된 사례의 아동학대 실태와 후유증 연구. **아동권리연구**, 7(1), 121-139.
- 임미향·박영신·김의철(2006). 초등학생의 삶의 질에 대한 분석: 사회적 지원, 자기 효능감, 학업 성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아동교육**, 15(1), 53-67.
- 장량(2005). 아동기 학대경험이 청소년기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익중·박현선·구인회(2006). 피학대아동이 비행에 이르는 발달경로. **한국사회복지학**, 58(3), 223-244.
- 조옥자·현온강(2005).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 및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아동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3), 141-161.
- 조은정(2004).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이 대인관계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주동범(1998). 학생배경과 학업성취: 어머니의 자녀

- 교육에의 관여가 매개하는가? **교육사회학연구**, 8(9), 41-56.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07). [http : //korea1391.org](http://korea1391.org)
- 한유진 · 유안진(1994). 아동과 청소년의 귀인성향 및 귀인양식과 학업성취. **대한가정학회지**, 32(3), 147-157.
- 홍수경(2003). 아동학대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은주(1998). 아동기 학대경험과 자아상으로 본 아동의 심리 · 사회발달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영희(1984).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아동학대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 Freeman. 박영신 · 김의철 (2001).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 교육 · 건강 · 운동 · 조직에서의 성취**. 교육과학사.
- Beezley, P. J., & Martin, H. P. (1976). Behavioral observations of abused children. *Developmental Medicine and Child Neurology*, 19, 373-387.
- Bong, M. (1997). Generality of academic self-efficacy judgements : Evidence of hierarchical relation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9, 696-709.
- Brassard, M. R., Hart, S. N., & Hardy, D. B. (1993). The psychological maltreatment rating scales. *Child Abuse & Neglect*, 17(6), 715-744.
- Caprara, G. V., & Steca, P. (2006). The contribution of self-regulatory efficacy beliefs in managing affect and family relationships to positive thinking and hedonic balanc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5(6), 603-627.
- Chao, R. K., & Willms, J. D. (2003). The effect of parenting practices on children's outcomes. In Dans, J., & J. D. Willms(Eds.), *Vulnerable children : Findings from Canada's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Children and Youth*. Edmonton, AB : University of Alberta Press.
- Cheng, S. K., & Chan, A. C. M. (2003). The development of a brief measure of school attitud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6), 1060-1070.
- Claussen, A. I. E., & Crittenden, P. M. (1991). Physical and psychological maltreatment : Relations among types of maltreatment. *Child Abuse & Neglect*, 15, 5-13.
- Eckenrode, J., Laird, M., & Doris, D.(1993). School performance and disciplinary problems among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9(1), 53-62.
- Elliot, T. R., Sherwin, E., Harkins, S. W., & Marmaarosh, C. (1995). Self-appraised problem-solving ability, affective stat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 105-115.
- Hart, S. N., & Brassard, M. R. (1991). Psychological maltreatment : Progress achieve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 61-71.
- Hernandez, L. P. (1993).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in the school resilience of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Hu, L.-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Hund, A. R., & Espelage, D. L.(2006).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disordered eating among undergraduate females : Mediating influence of alexithymia and distress. *Child Abuse & Neglect*, 30, 393-407.
- Ingoldsby, B., Schvaneveldt, P., Supple, A., & Bush, K.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nd adolescent achievement and self-efficacy in Chile and Ecuador. *Marriage & Family Review*, 35(3-4), 139-159.
- Kaslow, N. J., Rehm, I. P., & Siegel, A. W. (1984). Social cognitive and cognitive correlates of depression in children. *Abnormal Child Psychology*, 12,

- 605-620.
- Kaslow, N. J., Tanenbaum, R. I., Abramson, I. Y., Peterson, C., & Seligman, M. E. P. (1983). Problem solving deficits and depression symptoms among children. *Abnormal Child Psychology, 11*, 497-502.
- Kinard, E. (2001). Perceived and actual academic competence in maltreated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25*, 33-45.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2nd ed.). New York : Guilford Press.
- Pajares, F., & Miller, M. D. (1994). The role of self-concept beliefs in mathematical problem-solving : A path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6*, 193-203.
- Schneider, M. W., Ross, A., Graham, J. C., & Zielinski, A. (2005). Do allegations of emotional maltreatment predict developmental outcomes beyond that of other forms of maltreatment? *Child Abuse & Neglect, 29*, 513-545.
- Schunk, D. H. (1984). Self-efficacy perspective on achievement behavior. *Educational Psychologist, 19*(1), 48-58.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 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Shonk, S. M., & Cicchetti, D. (2001). Maltreatment, competency deficits, and risk for academic and behavioral mal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7*(1), 3-17.
- Vissing, Y. M., Straus, M. A., Gelles, R. J., & Harrop, J. W. (1991). Verbal aggression by parents and psychosocial problems of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15*, 223-251.

2007년 4월 30일 투고 : 2007년 7월 6일 채택